

개정 건축법시행령, 9월 9일부터 시행

대형건축물 사전승인권 시·도에 이양

정부는 새로 개정된 건축법시행령을 지난 9월 9일에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의 주요내용중에는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창고건물 등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한편 연면적 30만㎡이상 건축물에 대한 사전승인권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해 건축절차를 간소화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건축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건축조례 개정전이라도 건축행정 절차를 쉽게 하기 위해 일반건축물의 경우 종전까지 11층 이상이면 연면적 1만㎡이상이거나 연면적 3만㎡이상인 건물을 심의했으나, 9월부터는 16층이상이거나 3만㎡이상인 다중이용건축물로 심의대상을 축소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지난 9월 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건축법시행령의 주요내용이다.

-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공장에 설치하는 창고용 컨테이너에 대하여는 건축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4조제1항),
- 공장에 설치하는 창고용 천막은 가설건축물로 분류하여 이들 시설을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함(제15조제4항).
- 아파트지구 및 도시계획지구에서 건축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 하도록 하고(제5조제3항),
- 4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30만㎡이상인 건축물에 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 사전승인권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여 건축절차를 간소화함(제8조제4항).
- 전용주거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용도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제조업소·수리점·세탁소 등 비공해공장의 규모를 200㎡미만에서 500㎡미만으로 확대함(별표1 제4호).
- 생산녹지지역안에 창고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를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결과 지역에 따라 그 허용기준이 달라 물류시설의 확충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으므로, 생산녹지지역안에 창고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을 건축법시행령에 직접 규정함(별표13).

경기대 건축대학원, 98학년도 신입생 모집

4년제 대졸자 대상,
3년·2년과정 건축설계 전공

경기대 건축대학원에서는 98학년도 전기 건축대학원 건축설계전공 신입생을 모집한다. 지원자격은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자로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는 2년과정에, 기타 학과 졸업자는 3년과정에 지원할 수 있다. 지원원서는 11월 3일부터 서울캠퍼스에서 교부되며 원서접수기간은 오는 11월 10일부터 17일까지이다.

98학년도부터 국내 최초로 정부가 인증하는 전문대학원으로서의 인가가 예정된 경기대 건축대학원은 디자인 디렉터시스템 중심의 학부수업방식의 연장선상에서 정규과정의 건축전과 특강, 작품집 발간 등 특별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이다. 98학년도 신입생에 대한 전형 및 수업은 서울캠퍼스에서 실시되며 입학자중 매학기 성적 우수자 14명 및 연구보조원(R.A) 2명에게는 장학금이 지급된다. 한편 경기대 건축대학원은 지난 9월 12일 유방근(2.5건축 대표), 조택연(U.C.L.A건축도시계획 대학원 졸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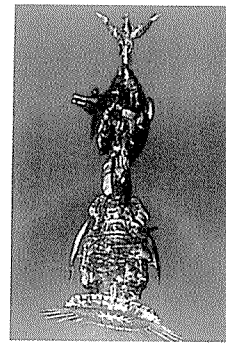
박경수, 이일성(POS-A.C 종합감리·건축사사무소), 육동건(열린건축사사무소), 이영범(삼성비서실 전무, 건축설계고문)씨 등 모두 6명의 겸임교수를 새로 영입했다고 발표했다.

이들 신임 겸임교수들 역시 건축실무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해온 전문가들이므로 경기대 건축대학원은 이일훈(이일훈 건축연구소), 조병수(조병수건축사사무소) 씨 등 기존 8명의 겸임교수를 포함 전체 겸임교수진이 14명으로 늘어났다.

문의 : 경기대 건축대학원(서울캠퍼스) 교학부 / 02-390-5245, 5246

재미 건축가 조택연 「GAIA PROJECT」전 열려

미래의 건축물과 도시를 홀로그램 등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전시



Urban-V1

CAD를 사용해 2000년대 지구상의 건축물과 도시를 표출해낸 미래건축디자인전이 열려 화제가 됐다.

지난 9월 22일부터 29일까지 서울 청담동 김내현 화랑에서는 영국의 제임스 러브록 교수의 지구초유기체이론(Gaia Theory)을 미래건축에 접목시킨 재미건축가 조택연씨의 「GAIA PROJECT」전이 열렸다.

「월간 건축인 POAR」가 창간 1주년을 기념해 개최한 이번 전시회는 21C를 막연한 가상공간이 아닌 현 과학이론의 발전

가능성에 대입시켜 건축의 미래를 보여준 전시였다. 특히 공상과학영화속의 우주선을 연상시키는 「에코반-V1」을 비롯해 미래의 건축공간을 3차원 홀로그램과 다중 슬라이드쇼, VTR 등 5가지의 다양한 미디어를 사용해 보여줌으로써 책이라는 2차원적 미디어의 평면위에서만 전달되던 제임스 러브록 교수의 GAIA(지구 초유기체)이론들이 미래의 건축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주었다.

제2회 건축사진전 금상에 김동범작 「時·空間의 修辭」

11월 28일부터 예술의전당에서 전시

한국건축가협회(회장 강석원)가 주최한 제2회 건축사진전에서 김동범(한양대 건축학과대학원)작 「時·空間의 修辭」가 영예의 대상을 차지했다.

김동범씨의 작품은 “건축적 조형미와 공간표현력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야경을 건축물과 조화시킨 수작”이라는 평을 받아 금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 이번 사진전에서 은상은 「숨막힘」을 출품한 송실대 건축공학과 3년 최지영씨와 「적막」을 출품한 성균관대 건축공학과 윤보기 등 2명이, 동상은 「조형물 사이로 본 건물」(이선호·이호디자인 대표), 「무제1」(조항만·(주)경영위치건축사사무소 대표), 「돌출」(정익재·청주대 건축공학과 4년) 등 3점이 뽑혔다.

총 1백38점의 작품이 응모한 이번 사진전은 건축물의 조형성과 공간에 대한 시각적 재현을 통해 일반인들에게 건축을 이해시키고 좀더 친근감있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된 행사로 올해로 2회째를 맞는 국내 유일의 건축사진공모전이다.

시상식 및 전시회 개막식은 오는 11월 28일 오후 3시 예술의전당 미술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주택·보육시설 심포지엄 및 작품전

한국여성건축가협회 주최
주제는 「미래의 중심에서」

지난 9월 25일부터 10월 2일까지 서울역 앞 연세재단 빌딩내 대우주택문화관에서는 한국여성건축가협회(회장 김복수)가 주최한 주택·보육시설 심포지엄 및 작품 전시회가 열렸다. 「미래의 중심에서」란 주제로 열린 이번 심포지엄에는 지 순(간삼건축 대표), 김진수(오픈스페이스 대표), 한숙희(민간교육시설연합회 회장), 김화연(역삼디자인 대표), 최경숙(인덕전문대 건축과 교수), 배시화(경원대 실내건축과 교수) 씨 등이 주택과 어린이 보육시설에 관해 주제발표를 하였다.

(주)명광 건축사사무소, ISO 9001인증 취득

설계·개발·감리·서비스 분야
품질보증체제 갖춰



(주)명광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대표 이사 조명식)가 품질보증모델중 인증과정이 가장 까다롭다는 ISO 9001을 획득했다. (주)명광(엔)건축사사무소의 이번 인증 취득은 설계 및 감리분야의 경우 ISO 인증제도가 아직 초기단계에 있는 상황에서 품질보증을 통해 설계와 감리분야에서 책임을 다하겠다는 지방 중소

업체의 굳은 의지가 담겨있어 그 노력을 평가할 만하다. 그간 (주)명광(엔)건축사사무소는 지난 96년 12월에 컨설팅 전문기관인 한국네빌클락의 지도를 받아 본격적인 시스템 구축에 들어갔으나 설계 및 감리분야의 참고자료가 전무해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등 지난 4월말 회사 표준체제를 완성하기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8개월여 동안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지난 8월 29일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으로부터 KS A / ISO 9001에 대한 인증을 획득, 건축공사의 설계, 개발, 감리 및 서비스분야에서 완벽한 품질보증체제를 갖추게 된 것이다.

(주)명광(엔)건축사사무소 조명식 대표이사는 “초기엔 ISO요건을 이해시키기 위한 직원교육 등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본계도에 오르자 오히려 비효율적인 부분들이 개선되고 체계적인 대내외의 업무협조 등이 원만해진 것은 물론 기본단계에서부터 품질보증을 확신할 수 있어 고객에게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게돼 가치경영의 길을 열게 되었다”고 밝혔다.

ISO 인증제도는 이미 외국에서는 품질보증을 위하여 모든 기술분야가 이 제도의 도입을 서둘러 왔으나 국내에서는 불과 2~3년전부터 일부 제조업분야와 건설시공분야에서 추진을 시작해 건설시공사의 경우 지난 4월말 현재 KS A / ISO 품질보증 인증을 획득한 업체수가 총 470여개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설계 및 감리분야에 있어선 현재까지 인증취득사수가 그리 많지 않아 아직 초보단계에 머물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건설업체의 경우 P.Q평가시 제도적으로 가산점이 보장되지만 설계 및 감리분야는 인센티브가 없어 품질보증제도에 대한 확고한 의지없이 추진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행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안 예고를 살펴보면 내년부터는 설계 및 감리분야에도 인센티브(가산점)가 주어질 전망이어서 앞으로 설계·감리분야에서도 인증획득 사례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예술종합학교

「건축 특별강연」

「근대건축의 공간」 주제로 11월까지 4차례 공연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건축과에서는 오는 10월과 11월 두차례에 걸쳐 성북구 석관동 교사에서 특별강연회를 개최한다.

10월 17일 3시에는 「근대건축의 공간」을 주제로 김종성(전 IIT학장, 서울건축대표)씨가, 이어 11월 10일 오후 3시부터는 서혜림(서혜림건축 대표)씨가 「Compressed Space」란 주제로 각각 강연한다.

강연내용과 장소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건축과 조교실(본관 201호, 02-958-2781)이나 미술원 조교실(별관 112호, 02-958-2772)로 문의하면 된다.

제8회 대한민국환경문화상 작품공모

종합대상, 건축, 조경 등 5개부문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환경문화 공간으로서의 가치가 뛰어난 작품을 찾아 시상함으로써 밝은 생활문화공간 조성의 기틀을 마련코자 제정된 제8회 대한민국 환경문화상의 출품작 공모요강이 발표되었다.

문화체육부와 한국경제신문사가 공동주최하는 이 행사는 종합대상, 건축, 실내장식, 조경, 조각 등 5개부문에 걸쳐 각 작품의 설계자와 시공자, 건축주에게 상이 주어진다.

신청접수는 10월 10일까지로 작품사진(8"×10" 정·측면사진 각 5매)과 소정양식의 신청서 및 작품설명서, 준공일

자확인서 사본 각 1부씩을 제출하면 된다. 단, 응모작품은 96년 10월 1일부터 97년 10월 10일 사이에 준공검사를 받은 작품이어야 하며 심사는 사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수상자를 결정하게 된다.

문의 : 한국경제신문사 사업국(02-360-4510, 02-362-6654)

「제2회 청년작가실험전 -「恒性」- 지방순회 전시

10월 4일부터 광주, 부산, 대구 순회전 열어

지난 8월 서울 경인미술관에서 열려 건축인은 물론 많은 일반인들로부터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제2회 청년작가실험전 - 항성」이 이번에는 지방으로 자리를 옮겨 일반에 공개된다.

지난 서울 전시회에서는 건축창작에 있어 일관성과 지속성을 의미하는 「항성」을 주제로 아홉명의 건축가와 일곱명의 평론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강의와 전시라는 독특한 구성으로 건축의 향토적 풍토에 강한 의미를 제기하고 나름대로의 방향을 모색함으로써 관람객들에게 신선감을 더해 주었다.

오는 10월 4일 광주를 시작으로 부산과 대구를 순회하는 이번 전시 역시 서울전 시회에 참여했던 김태수, 조건영, 강남구 등 3명의 초대작가과 강일원, 김태우, 박종원 등 주최측이 자체 선정한 30대 작가들중 6명의 대상작가 작품이 선보인다. 특히 광주 전시회의 경우는 맥갤러리에서 오후 3시부터 전시참여 작가들과의 작품설명회 시간이 마련되며 또한 류연창, 박화수, 송건, 강남구, 한진수 씨 등 광주지역을 무대로 활동중인 건축가들이 「광주건축의 어제와 오늘」 「광주건축의 미래」 등을 주제로 강의와 종합토론을 펼칠 예정이어서 큰 관심이 모아진다.
문의 : 현실비평연구소 (02-304-6539),

광주 맥갤러리 (062-222-0992)

오토데스크 「'97 I&A 공모전」

수상자 발표

건축부문 대상에 코아종합건축
고석균씨

고석균 회원(코아 종합건축사사무소)이 오토데스크가 국내 멀티미디어 매니아를 대상으로 실시한 '97 Image & Animation 공모전에서 건축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오토데스크 코리아(대표 김일호)가 지난 95년부터 멀티미디어 문화·예술사업의 일환으로 매년 개최해 온 I & A 공모전은 컴퓨터를 이용한 첨단예술 창작물의 작가들을 발굴해 그들의 창작의지 및 작업의욕을 고취시키고자 마련된 행사로 올해 공모전에는 건축·기계·비디오 등 5개부문에 총240여점의 작품이 출품돼 경합의 열기를 더했다.

심사위원들은 특히 건축부문의 경우 대상을 수상한 고석균 회원의 「Office Simulation」 작품을 비롯해 우수상을 받은 홍재욱(동명정보대 컴퓨터그래픽학과)씨의 「West」등 상당수의 출품작들이 기술적으로나 내용면에서 독특한 창의성을 지닌 수작들이 많아 우열을 가리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9월 29일 오후 6시 잠실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는 고석균 회원을 비롯해 강지연(기계부문 대상 수상자), 황규민(오락교육부문 대상수상자) 씨 등 이번 공모전의 각 부문별 입상자 21인에 대한 시상식이 개최됐다.

경기대 건축대학원

「97건축설계교육 포럼」 개최

「Tectonics」란 주제로 각계 전문가 참여

경기대 건축대학원에서는 오는 11월7일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 삼성동 포스코 센터 4층 강당에서 건축설계교육에 관한 학술포럼을 개최한다.

「Tectonics」를 주제로한 이번 학술포럼에는 교육계와 실무분야 전문가들이 참가해 우리 대학의 교육목표인 동시에 건축계의 당면과제중 하나인 '이론에 치우치지 않는 실제적 설계'에 관해 주제발표와 토론을 펼친다.

주제발표자로는 우경국(에공건축), 조병익(N.Y. Ove Arup & Partners), 김란기(우드텍 건축연구소), 박경수(Pos-A.C. 이사보), Wolfgang Böhm(독일 Kalserslautern대), 박승규(울산대)씨가, 토론자로는 정무웅(단국대), 김억중(한남대), 김준성(경기대), 강병근(건국대)교수 등이 참여한다.

문의 : 경기대 건축대학원(02-390-5245~6)

건축신간 안내

건축디자인의 기초
건강하고 잘생긴 건물의 구조
만화로 배우는 철골건물 감리

◇ 건축디자인의 기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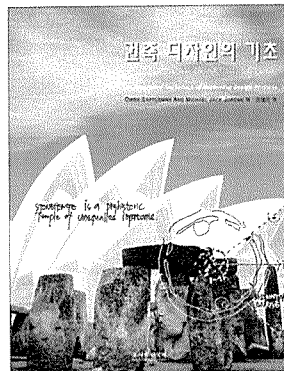
이 책은 기초 디자인 프로젝트에 관한 해설서로 건축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직면하는 디자인 문제를 수집해, 그에 대한 디자인 해결방안들을 제시함으로써 기초 디자인을 공부하는 학생들이나 디자인을 가르치는 교육자들에게 풍부한 디자인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있다.

이 책의 공동저자중 한사람인 오웬 캐플먼은 미국 텍사스대 건축학과 교수로 현

재 화가와 그래픽 디자이너로도 활동 중이며 또다른 저자인 마이클 잭 조던은 오클라호마대에서 건축학을 가르치고 있는 건축가이다.

이 책 제1장에는 학생들이 보내온 프로젝트의 삽화와 함께 유럽과 미국에서의 기초디자인 교육에 관한 역사가 소개되어 있으며 제2장에서는 프로젝트 삽화와 그에 관한 설명, 페이지 여백의 주석 그리고 프로젝트 아이디어 등으로 구성된 각 프로젝트에 관한 개요를 실고 있다. 이밖에 부록편에서는 각 프로젝트에 관한 보충정보와 상세한 프로그램 기록을 비롯, 각 프로젝트의 저자들에 대한 간략한 전기와 프로젝트 유형학에 관한 분류학적 접근방법 그리고 디자인 목표의 달성과 그것들의 적용에 관해서 다루고 있다.

오웬 캐플먼, 마이클 잭 조던 공동저/ 오영근譯 / 도서출판 국제(02-359-7606) 펴냄 / A4 / 217쪽 / 1만3천원



◇ 건강하고 잘생긴 건물의 구조

이 책은 구조설계분야에 대한 기고문들과 외국전문가의 글을 번역해 건축관련 간행물에 기고해 온 글들을 모아 한권의 책으로 엮은 것으로 수록된 30여편의 글들은 모두 현실의 생생한 기록들이다.

국내 구조설계분야의 현실에 대한 애정과 국의 현실과의 유사성과 상치를 함께 드러내 놓고 있는 이 책은 구조설계에 대한 관심을 각계에 요구하는 하나의 메시지라 할 수 있으며 구조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1장 구조엔지니어의 환경을 시작으로, 제2장 다른나라의 구조엔지니어, 제3장은 건물의 설계, 제4장 참여 토론 그리고

제안, 제5장 건물의 안전과 도심지의 지하공법 등으로 구성돼 있다.

전봉수저/ 도서출판 기문당(02-295-6171~5) 펴냄 / 신국판 반양장 / 360쪽 / 1만원



◇ 만화로 배우는 철골건물 감리

설계 종료시점에서부터 철구 가공공정과 작업현장에 이르기까지 절차에 따라 체험담을 만화로 정리한 책이 나왔다.

이 책은 「만화로 배우는 건물의 철근배치」에 이어지는 시리즈로서 철골물의 품질관리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설계도서가 완성된 후 건물이 완공되기까지의 과정을 통해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감리를 할 것인지를 건물의 시공 상황에 맞춰 만화로 재미있게 해설하고 있다.

특히 이책은 건설현장과 철골 제작공장 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술자와 젊은 설계자, 그리고 앞으로 건축계에 입문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대성건설건축구조연구회저/ 도서출판 국제(02-359-7606) 펴냄 / 4×6배판 / 134쪽 / 9천8백원

